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 실시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개혁과 법안이 쌓여 있는데도 정쟁(政爭)으로 수개월째 국회를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국회인 6월도 보름이 지나도록 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간의 직무유기와 국회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부조건 국회를 열고야 여야 모두에게 요구했다.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정당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과행 국회는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는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내용으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최저점으로 삼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말로 끝나는 국회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 개혁과 함

께 국회 예산 동결, 국회의원 연봉 산정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일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봉이 1억5천만 원이 넘고, 서기관 2명의 보좌관 등 9명의 보좌진 등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의 수억 원이 된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이나 선언은 모두가 실행이 없는 헛된 구구선(口頭禪)이 되었다.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임기 중에 잘못하면 탄핵과 주민소환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번 당선되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가 많다.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하여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찾아다니다가 당선되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사람이 많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에 성실하고 공평 무사하게 헌신 봉사하려고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 국회 자체를 열지도 않고 급여만 받아먹으려는 특권을 준 것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에 180만여 명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에는 30만여 명이 찬성했다

정당은 우리 헌법이 존립과 활동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要體)이다. 인류 역사에서 얻은 피어난 교훈이 하나의 정당이 있으면 독재가 되기 쉽고, 기본권 등 인권이 보장 안 된다는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견제와 균형, 경쟁과 협력을 해야 정치도 경제도 발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정치에서 하나의 정당, 일당(一黨)만 있으면 안 되듯이,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도 견제와 균형, 경쟁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항공사도 두 개가 서로 경쟁하니, 운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게 된다. 승객과 국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봉사하고 편의를 위하여 업무를 개선하게 된다.

일반인과 달리 200여 가지 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 중에 의혹이나 비리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일이 생기면, 몇 년씩 걸리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국민적인 심판과 파

면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절대 권력이 아니고 국민이 위임해준 한시적인 제한된 권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는 제도 자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회의원들이 조심하고 국민들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예방적이고 견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을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 등 국민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입법과 실시가 어렵다.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세비(연봉) 책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 예산 동결 등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은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서워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막연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이 좀 더 깨어나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선과 정의는 변함없이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침해받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가치다.

'이놈들아! / 우리 쪽발이 총 맞고 칼에 찔려 가면서 / 만주 눈보라 속에서 모여앉아 / 가슴 열고 / 좌로 가든, 우로 가든 / 하루라도 한시라도 서둘러 / 조국 독립으로 가자 / 매일 이것이 결론이었다 / 100년 지나 똑똑하다는 너희도 / 아니 전 세계 인간들이 / 아직도 결론 못낸 것 가지고 / 목숨 걸고 가족 뒤로하고 너희 위해 싸운 / 우리에게 그러면 서운하다 / 조국의 많이 배운 조카들아!'

社說

노인 교통사고 예방 나서야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증가일로에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도 하나의 원인이 되긴 하겠으나 이와함께 운전자들의 운전 부주의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광주시가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에 일제정비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노인인구는 2018년 16만6889명에서 2018년 18만7186명으로 12.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31건(2016년)에서 356건(2018년)으로 14.5% 증가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시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노인보호구역 컨설팅 감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노인보호구역 48곳에 대해 현장조사 후 37곳의 교통시설을 정비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용역을 마

쳤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현재 시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지정대상 시설 1677곳에 비해 매우 낮은 3%에 불과해 노인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협조해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양등시장, 대인시장, 말바우시장 등 어르신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5곳을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노인보호구역 일제 정비를 통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 운전자들도 노인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를 감속하는 등 안전운행이 필요하다.

광주시의 이번 조치가 노인들의 보행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世	인간	세	世祿修富
祿	복	록	
修	사치할	치	
富	부유할	부	

▷ 뜻: 대대(代代)로 복이 사치(奢侈)하고 부하니 제후(諸侯) 자손(子孫)이 세세 관록이 무성(茂盛)함.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	대표 이사·회장 김평호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편집국장 강서원
호남신문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대표전화 (062) 224-5800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 (062) 222-554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대화방,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96%를 기록한 우리 사회는 이제는 '단체로 대화를 나누는 메신저의 채팅방(일명 단체대화방)'이 기본인 사회가 되었다. 요즘 학교나 직장에서는 카카오톡 등의 단체대화방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하지만, 편리한 단체대화방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어느 유명 연예인의 단체대화

방 사건부터 어느 학생들의 성희롱 단체대화방 사건까지 계속해서 추악한 범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진 그들만의 대화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신고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단체대화방 내 피해 등의 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단체대화방은 초대된 특정인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

라는 생각에 타인을 모욕하는 말은 물론이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온라인공간인 단체대화방은 처벌이 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어, 단체대화방을 자신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모욕이나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지만 대화 내용이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단체대화방에서 특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

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폐쇄적이라고 생각했던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고, 쉽게 다른 곳에 전달할 수 있는 만큼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워 특정인들의 단체대화방의 대화라도 모욕,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발언이 있다면 형사처분 대상이다.

장난삼아 던진 돌, 개구리 죽는다는 속담처럼 장난삼아한 단체대화방의 대화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진현석 /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경장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